

김지사 “광산구, 미래산업 전진기지 도약할 것”

광주서 3번째 찾아가는 타운홀미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미래 비전 공유
특례·비전 설명...지역민 의견 청취
도 “특별법 의결 환영...준비 속도”

전남도는 5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청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범 준비를 위한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을 열어 특별법에 담긴 주요 특례와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하며 미래 성장 전략도 논의했다.

이날 타운홀미팅은 동구·서구에 이어 광주에서 열린 세 번째 현장 소통 일정이다. 특별법 국회 통과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범이 확정됨에 따라 다양한 시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타운홀미팅은 김영록 전남지사와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주민자치위원, 통장, 사회단체

장,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영록 지사는 통합 추진 경과와 전남광주특별시장의 미래상, 특별법 주요 특례 등을 PPT로 직접 설명하며 오는 7월 출범할 특별시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과 의견 수렴 시간에는 통합 이후 광산구의 역할과 비전, 광주 권역별 산업 발전 전략, 통합 이후 시·도민 체감 효과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제시된 의견은 향후 특별시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7월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 제1호 광역통합 모델”이라며 “인구 320만명을 넘어 400만명 시대로 도약하는 대부흥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지사는 “대전환의 중심에서 광산구는 미래차 국가산단·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등 미래 모빌리티 거점 조성, 군공항 이전 부지의 AI·반도체 연구집적단지과 벤처창업 단지 조성, 부품·인증·실증에 연계된 22만평 규모 미래차 산업벨트 조성 등을 통해 통합특별시 성장을 견인



남 통합으로 여는 새

김영록 전남지사가 5일 오후 광주 광산구청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광주 지지구 초청 타운홀미팅(광산구)'에서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하는 미래산업 전진기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6일 북구에 이어 9일 남구를 마지막으로 광주지역 타운홀미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반도체 기업 유치·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추진”



이병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정책 제시 “5대 권역별 특화전략 상생발전” 약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5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추진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사진> 이 예비후보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법 통과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지만 법의 통과가 곧 통합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통합 이후 어떻게 성장하고, 그 변화가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남과 광주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산업 성장 둔화라는 공동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전남의 공간·자원 경쟁력과 광주의 인적 역량을 결합하면 국가 성장축을 구축할 수 있다”며 “통합은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닌 산업과 경제 구조를 재편하는 획기적 전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예비후보는 “인공지능(AI), 방위산업, 미래 모빌리티, 2차전지, 항공우주산업 등 첨단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반도체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전남 동부권, 전남 서남권, 전남 남부권, 광주 연계권, 광주 도시권 등 5대 권역 발전체제로 재편해 지

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분야의 경우 AI와 반도체 산업, 우주항공 산업을 연계해 차세대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첨단소재 산업은 석유화학·철강 산업을 고기능성·경량화 중심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 전기차 배터리와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을 집적화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겠다는 게 이 예비후보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문화관광 산업, 농생명·식품 산업 등 각 분야별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확대해 소득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에너지·해양·문화·관광·농수산 분야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지역의 주력 산업과 연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기자

정준호 “전남광주 ‘원패스’ 시대 열겠다”

‘통합요금제’ 분절된 교통체계 혁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갑)은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첫 행보로 북구 살레시오 종점(일곡공영차고지)에서 운수종사자들과 조합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남과 광주의 경계를 허무는 ‘전남광주(One-Pass) 통합요금제’를 약속했다.

정 의원은 이날 새벽 운행을 준비하는 운수종사자들을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배웅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전남과 광주는 출퇴근, 통학, 의료 등 이미 하나의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절된 교통체계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비용 부담과 불편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전남과 광주 시민들은 시외 경계를 넘을 때마다 달라지는 요금 체계와 환승 할인 미적용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왔다. 이에 정 의원은 수도권 성공모델을 벤치마킹한 전남·광주 맞춤형 통합요금제 도입, 시외 연계 통과 시 할증요금 폐지 등을 약속했다.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교통권으로 묶어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진수기자

또한 정 의원은 교통 복지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전기·수소버스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친환경 경 기반 강화 ▲절감된 연료비를 활용한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환원 ▲운수사 손실분 선제적 보전을 통한 경영 안정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경계는 사라지고 혜택은 더 커지는 전남·광주 원패스 시대를 열겠다”며 “전남·광주가 더 이상 나뉜 생활권이 아닌 하나의 경제권이자 교통권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류춘오 무안체육회장 “무안군수 출마”



류춘오 무안군체육회장이 5일 무안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사진> 류 회장은 이날 무안읍 송달 문화예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순한 변화가 아닌 ‘체질 개선’을 통한 무안의 재도약을 만들어 서남권 중심도시로 재건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류 회장은 핵심 공약으로 ‘RE100 국가산단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 참여형 에너지 수익 구조 확립을 제시했다. 더불어 전통 농수축산업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6차 산업 활성화, 인공지능(AI) 미래 교육 강화와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등 정주여건 개선, 읍·면 순회 정책회의를 정례화해 현장 중심의 실무 행정으로 전환을 약속했다. 류춘오 회장은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하고 청년들의 고충을 청취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무안의 다음 100년을 시작하겠다”며 “정체된 무안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도적인 서남권 시대를 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무안=김상호기자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안전한 실버 한 줄
주아간에 보행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제작한 은색의 반사판 키링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주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 참여기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구소, 전라남도교통연구소, 손해보험협회